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

칠성본풀이

옛날 옛적 장나라 장설룡 대감님 사옵데다. 송설룡 부인님이 삽데다.

부베간이[1] 입장갈림[2] 헤연 살아가는 게. 애긴 엇언 호호탐복[3] 허난, 동게남 은중절(東觀音殷在寺) 서게남 금법당(西觀音金法堂) 낭게 상상 메양[4] 올란. 한동절에 부처 지컨[5] 대서님이,

"집 안으로 들어서멍 짓알로 도노리멍[6] 소승 절이 붸옵네다."

시권제삼문을 내여놉데다.

"높이 들렁 알러레 시르륵 시르륵 비웁서. 훈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복도 떨어지는 법입네다."

높이 들렁 알러레 시르륵 시르륵 비우난,

"대서님아, 대서님아. 단수육갑(單數六甲)이나 짚어봅서. 오용팔과(五行八卦)나 짚어봅서. 우리 부베간 ᄌᆞ식[7] 엇언 호호탐복 헤엿우다."

"장설룡 대감 송설룡 부인님아, 우리 절간법당에 오랑 원수륙(願水陸)이나 드려봅서."

원수륙을 올리난, 벡 근을 채우난, 아흔아홉 근이로구나. 훈 근량이 모자란 똘 성불벰이 못 처급(處給)허쿠다. 똘 성불도 좋수덴 헤연. 밤인, 부베간이 합궁날(合宮日) 합궁시(合宮時) 천상베필(天上配匹) 무으난,[8] 아방 몸에 석 덜 열흘, 어멍 몸에 석 덜 열흘. 아호 열 덜 가마 준삭(準朔) 창[9] 낳는 건 보난, 장설룡 ᄯᆞ님[10]애기가 솟아낫구나.

훈 설 두 설 일곱 설이 뒈여가난, 장설룡 대감님은 장서 베실[11] 살레옵서. 송설룡 부인님이랑 송서 베실[12] 살레옵서.

"늦인덱이 정하님아. 우리 장서 베실 송서 베실 살앙 옴 동안,[13] 궁기로[14] 밥을 주고 궁기로 물을 주멍 키왐시라."

---

1) 부베간이: 부부가.
2) 입장갈림: 혼인.
3) 호호탐복: 근심 걱정.
4) 메양: 매 번. 늘.
5) 지컨: 지킨.
6) 짓알로 도노리멍: 아래로 내리면서.
7) ᄌᆞ식: 자식.
8) 무으난: 맺으니.
9) 창: 차서.
10) ᄯᆞ님: 따님.
11) 장서 베실: 장서 벼슬.
12) 송서 베실: 송서 벼슬.
13) 옴 동안: 오는 동안.
14) 궁기로: 고망으로.

"걸랑 기영헙서."

장설룡 대감님광 송설룡 부인님 가멧부출에[15] 애기씨 똘랑 가당[16] 묵은[17] 각단[18] 새 각단 밧디 강[19] 털어지난 동서더레 질이[20] 낫구나. 동더레도 걸어가고, 서더레도 걸어가난 세비낭[21] 가시에, 범지리 가시에[22] 옷은 다 칮어지엇구나.[23] 피는 찰찰 낫구나. 동서더레 질이 나난,

집이선 애기씨 감감무례 뒈엇구나.[24] '장설룡 대감님아, 장서 베실 그만 살앙 훈저[25] 옵서. 송설룡 부인님아, 송서 베실 그만 살앙 훈저 옵서. 애기씨 감감무례 뒈엇우다.'

애기씨 감감무례 뒈엇젠 허난, 장서 베실 훈저 살앙 왓구나. 송서 베실 훈저 살앙 왓구나.

완 보난, 애기씨 벡방(百方)으로 춪아도[26] 엇엇구나.

애기씬 이제 동서더레 질이 나난,

"앞이 오는 대서님아, 날 살립서."

눈도 아니 거듭 뜬다.

"두 번째 오는 대서님아, 날 살립서."

눈도 아니 거듭 뜬다.

"세 번째 오는 대서님아, 날 살립서."

"아이고, 우리 절간법당에 강 수륙 드령 난 장설룡 뚜님 애기로구나."

상가메를[27] 일곱 번을 씰어부난,[28] 애기씬 깜빡깜빡 일곱 번을 놀래엇구나. 아이고, 옷은 다 칮어져 불고, 피는 벌겅케[29] 나고, 센[30] 비언[31] 주지[32] 멘들안,[33] 주지 씨완. 애기씬 싱근들어 물팡돌[34] 아래 놓아두고,

"짓알로 도노리멍 소승 절이 뷉네다."

---

15) 가멧부출에: 가마 가상자리 나무에.
16) 똘랑 가당: 따라서 가다가.
17) 묵은: 오래된. 헌.
18) 각단: 길이가 짧은 띠. 주로 '집가제'를 지르거나, '집줄'감으로 쓰임.
19) 밧디 강: 밭에 가서.
20) 질이: 길이.
21) 세비낭: 찔레.
22) 범지리 가시에: 실거리 나무 가시에. 잎은 아카시아 비슷하고, 온 몸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나고, 노란 꽃이 피는 콩과에 속한 나무.
23) 칮어지엇구나: 찢어지었구나.
24) 감감무례 뒈엇구나: 순식간에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.
25) 훈저: 어서. 빨리.
26) 춪아도: 찾아도.
27) 상가메를: 머리 꼭대기에 있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머리털의 자리를.
28) 씰어부난: 쓸어버리니.
29) 벌겅케: 빨갛게.
30) 센: 띠는.
31) 비언: 베어서.
32) 주지: 띠를 엮어 원뿔 모양으로 만든 것.
33) 멘들안: 만들어서.
34) 물팡돌: 말을 타고 내릴 때 밟고 타고 내릴 수 있는 돌.

장설룡 대감님광 송설룡 부인님 시권제삼문(勸濟三文) 내어주멍 허는 말이

“대서님아, 대서님아, 당신 절간법당에 강 수륙 들영 난 애기 감감무례 뒈엿이난 단수육갑이나 짚어봅서. 오용팔괘나 짚어봅서.”

“아이고, 부르민 들을만 헌 디[35] 잇우다. 웨민 웸 소리[36] 들을만 헌 디 잇우다.”

“이 중 저 중 필아곡절(必有曲折) 허다.”

수장남(首長男)아, 수벨캄(首別監)아, 저 중 귀 잡아 네훈둘루렌[37] 허난, 대서님이 축지법을 썬 ᄇᆞ름절로 구름절로 대서님은 나고 간. 모인 구듬 한 구듬[38] 조이점삭 시겻구나.

모인 구듬 한 구듬 꼴아 앚안[39] 바려보난, 싱근들어 ᄆᆞᆯ팡돌 아래 난데엇인 오제미가 잇엇구나. 오제밀 클렁 보난[40] 그 소곱에[41] 애기씨가 잇엇구나.

눈은 헤뜩 세는[42] 멜록[43] 몸은 아리롱다리롱[44] 홍단(紅緞) 서단 비단 애기가 뒈엇구나. 아이고, 이 애기, 이거 바려보난,[45] 벤 테독(胎毒)같이[46] 불엇구나. 은데양에[47] 세숫물을 떠 놘. 은수제[48] 걸쳔 굴메[49] 바려보난, 아이고, 애기 일곱 베엿구나.

양반이 집이 소단공서(祠堂供辭) 낫구나. 앞 밧디랑[50] 작수 걸라. 뒷 밧디랑 작두걸라. 조강놈을[51] 불르라. 죽일팔로 헤여가난, 장설룡 대감님 송설룡 부인님 허는 말이,

“장설룡 대감님아, 우리 앞이서 어떵 애기 죽이는 꼴을 보쿠과?”

“게민 어떵허민 존느니?”

“무쉐젱이[52] 불러단 무쉐설캅[53] 짱[54] 동 바당더레 띠와불기가 어떵헙니까?”

걸랑 기영 허렌.

무쉐젱이 불러단 무쉐설캅 짠 동 바당더레 띠와부난 물아레도 연삼년 흥당망당, 물우이도 연삼년 흥당망당 떠뎅기단[55] 제주 와당더레[56] 들어오랏구나.

제주시로 들젠 허난,[57] 산지 용궁(山地 龍宮) 칠머리가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화북

---

35) 헌 디: 한 곳에.
36) 웨민 웸 소리: 큰소리 내면 그 소리.
37) 네훈둘루렌: 휘두르라고.
38) 모인 구듬 한 구듬: 작은 먼지. 큰 먼지
39) 꼴아 앚안: 깔아 앚아서.
40) 클렁 보난: 풀어서 보니.
41) 소곱에: 속에.
42) 세는: 혀는.
43) 멜록: 혀를 입 밖으로 조금 잠깐 내미는 꼴.
44) 아리롱다리롱: 아롱다롱.
45) 바려보난: 바라보니.
46) 같이: 같이. 처럼.
47) 은데양에: 은 대야에.
48) 은수제: 은 수저.
49) 굴메: 그림자.
50) 앞 밧디랑: 앞 밭에는.
51) 조강놈을: 형 집행자를.
52) 무쉐젱이: 무쇠장이.
53) 무쉐설캅: 무쇠석함.
54) 짱: 짜서.
55) 떠뎅기단: 떠다니다가.
56) 와당더레: 바다로.

(禾北)으로[58] 들젠 허난, 화북 금돈지[59] 알[60] 들젠 허난 화북 가릿당이[61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삼양(三陽)으로 들젠 허난 시월도병서한집[62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신촌(新村)으로 들젠 허난, 큰물머리한집[63]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. 조천(朝天)으로 들젠 허난, 조천 세콧알[64]로 들젠 허난 정중아미 정중도령[65]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. 신흥(新興)은 막게낭당한집 쎄어지어 못 들어가고, 함덕(感德)은 흔물 두물 서물한집 쎄어지어 못 들어가고, 야, 동복(東福) 뒷게 낭낭선(落南船) 페도목에[66] 올라온 한집[67] 쎄어 못 들어간다.

저, 김녕(金寧)으로 들젠 허난, 큰두한전 큰도부인, 성세기[68] 삼본향, 궤네기는[69] 소천국,[70] ᄂᆞᄆᆞ리당도[71] 초일뤠 쎄어 못 들어간다. 월정(月汀)은 들젠 허난, 신산국 삼대왕[72] 서당국 하르방 서당국 할마님[73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헹원(杏源)은 나주목서(羅州牧使) 나주판관(羅州判官) 기민들어 절ᄎᆞ저 궁전요왕대부인(宮殿龍王大夫人)[74] 오분작 하르방 오분작 할망[75] 쎄어지어 못들어간다.

한동(漢東)은 들젠 허난, 9월 9일 ᄇᆞ름웃도 상원님[76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평대(坪垈) 수데기한집[77]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. 저 갯마리[78] 멍동소천국 [79]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저, 상세와(上細花)린 천ᄌᆞ 벡주 금상도[80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어딜로 들리오. 저, 하도(下道) 벨방으로[81] 들젠 허난, 여리불법할망[82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종달리(終達里) 들젠 허난, 장나라 장설룡 송나라 송설룡 할마님 일뤠중저 열두시구전한집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벡주노산주[83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---

57) 들젠 허난: 들려고 하니.
58) 화북으로: 제주시 화북(禾北).
59) 금돈지: 화북에 있는 지명.
60) 알: 아래.
61) 가릿당: 화북동 당신(堂神).
62) 시월도병서한집: 제주시 삼양이동(三陽二洞)의 당신(堂神).
63) 큰물머리한집: 조천읍(朝天邑) 신촌리(新村里) 당신(堂神).
64) 세콧알: 조천읍(朝天邑) 조천리(朝天里) 지명.
65) 정중아미정중도령: 조천읍 조천리 당신.
66) 페도목: 배를 만든 재목(材木)의 이름인 듯.
67) 뒷게 낭낭선 페도목에 올라온 한집: 구좌읍(舊左邑) 동복리(東福里)의 당신을 표현함. 동복리의 당신인 송씨하르바님이 제주에 들어오는 모습을 말한 것임.
68) 성세기: 김녕리(金寧里) 소재의 지명(地名).
69) 궤네기: 김녕리(金寧里)의 당(堂).
70) 소천국: 김녕리(金寧里) 하송당신(下松堂神)으로서 부신(夫神).
71) ᄂᆞᄆᆞ리당: 김녕리(金寧里) 소재 당신(堂神).
72) 신산국 삼대왕: 월정리(月汀里) 큰당의 신명(神名).
73) 서당국 하르방 서당국 할망: 월정리(月汀里) 서당의 신명(神名).
74) 나주목서(羅州牧使): 행원리(杏源里) 큰당의 신명(神名).
75) 오분작 하르방 오분작 할망: 행원리(杏源里) 남당의 신명(神名).
76) 9월 9일 상원님: 한동리(漢東里)의 당신(堂神).
77) 수데기한집: 평대리(坪垈里)의 일뤳당신.
78) 갯마리: 평대리(坪垈里) 바닷가의 한 지명(地名).
79) 멍동소천국: 평대리(坪垈里)의 해신당(海神堂).
80) 천ᄌᆞ 벡주 금상도: 세화리(細花里)의 당신(堂神).
81) 벨방으로: 별방(別防)으로. 하도리(下道里)의 옛 이름.
82) 여리불법할망: 하도리(下道里)의 당신(堂神).
83) 벡주노산주: 종달리(終達里)의 당신(堂神).

저, 시흥리(始興里) 허 씨 허천 부 씨 허천 송갑ᄉᆞ(宋甲士) 시절 양태금문 청룡줄 벡룡줄로[84] 노념헌 한집 큰물머리한집[85]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. 시흥리(始興里)로 들젠 허난, 허 씨 허천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어딜로 들리오. 성산(城山)으로 들젠 허난, 일뤠중저한집[86] 세어지어 못 들어간다. 어딜로 들코.[87] 신양리(新陽里)로 들젠 허난, 신양리 본향은 하로하로산도 ᄋᆞ섯번째 아들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신풍(新豊) 삼달(三達) 고첫당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어딜로 들리오. 하천리(下川里) 신천리(新川里) 들젠 허난, 선씨일월(玄氏日月)[88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표선(表善)은 들젠 허난, 당케하르망 당케할망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저 토산(兎山)으로 들젠 허난, 일뤠한집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태흥리(泰興里)로 들젠 허난, 쉐나라 쉐포수 물나라 물포수 소곰막 일뤠중저[89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남원(南元)이로 들젠 허난, 웨오 들러 웬 도께비 ᄂᆞ다 들러 ᄂᆞ단 도께비[90] 저하늘에 베레드레[91] 예레드레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또 이젠, 위미리(爲美里로) 들젠 허난, 동마막 서마막[92] 하로지기 고부랑 폭낭[93] 삼천벡메(三千兵馬) 도위관청(都位官廳) 칠오름[94] 도이병서(都兵使)도 쎄어지어, 허자벡이 하ᄆᆞ을[95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하효(下孝)로 들젠 허난 하흔, 조노기한집[96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 저, 볼목리(甫木里)도 웃조노기 알조노기[97]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서귀포로 들젠 허난, 동문관 일벡제 서문관(西門關) 지산국 솔동산[98] 거부용신(巨富龍神) 관청(官廳) 진안할마님 벳머리 일뤠중저한집님 쎄어지어 못 들어간다.

제주 소병리(四壁里) 주위를 벵벵 돌아도 ᄆᆞ을 지컨[99] 본향 한집이 쎄어지어 못 들어가난, 뒈고비에 채 앚언 ᄆᆞ을마다 여마다 이름 셍명 다 지와두고 함덕(咸德) 서우봉[100] 알로[101] 무셍기 알로 무쉐설캅 올랏구나.

함덕 일곱 좀수덜[102] 아침이 물에 들레 가단[103] 무쉐설캅 봉갓구나.[104]

---

84) 청룡줄 벡룡줄: 다리인 무명을 청룡, 백룡(뱀의 뜻)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.
85) 큰물머리한집: 시흥리(始興里)의 당신. '큰물'은 시흥리의 지명.
86) 일뤠중저한집: 성산리(城山里)의 일뤳당신.
87) 어딜로 들코: 어디로 들어갈까.
88) 선씨일월(玄氏日月): 신천리(新川里)의 당신(堂神).
89) 쉐나라 쉐포수 물나라 물포수 소곰막 일뤠중저: 태흥리(泰興里)의 당신(堂神).
90) 웨오 들러 웬 도께비 ᄂᆞ다 들러 ᄂᆞ단 도께비: 남원리(南元里)의 당신(堂神).
91) 베레드레: 별에 달에.
92) 동마막 서마막: 동(東)마마기와 서(西)마마기. 위미리(爲美里)의 지명으로 당(堂) 소재지 임.
93) 꼬부랑 폭낭: 구부러진 팽나무.
94) 칠오름: 서귀포시(西歸浦市) 상효리(上孝里)의 오름.
95) 허자벡이 하ᄆᆞ을: 산신대왕(山神大王)의 하위 신.
96) 조노기한집: 서귀포시(西歸浦市) 하효리(下孝里)의 당신(堂神).
97) 웃조노기 알조노기: 서귀포시(西歸浦市) 보목리(甫木里)의 당신(堂神).
98) 솔동산: 서귀포시에 있는 동산 이름.
99) ᄆᆞ을 지컨: 마을 지킨.
100) 서우봉: 함덕리에 있는 해변 이름.
101) 알로: 아래로.
102) 좀수덜: 좀수들. 해녀들.

"아이고, 느가 문저[105] 봉갓저. 나가 문저 봉갓저."

막 싸움발악 허염시난, 송동지 하르방 아침 볼락[106] 낚아단 조반 반찬 허젠 가단 보난 일곱 좀수가 느 머리, 나 머리 싸움발악 헤염구나.

"아이고, 느네 무사[107] 경 싸왐디?"

"아이고, 나가 문저 봉가신디, 요년이 문저 봉갓젠 헤염수다."

요년이 문저 봉갓우덴. 나가 문저 봉갓우덴.

"야, 니네 훈 바당에[108] 물질허영 허는 아이들이 무사 경 싸왐디?"

그 소곱에 금이 드나, 은이 드나 반득이[109] 일곱 좀수가 갈라주고, 그 무쉐설캅이랑 나를 주민 그 담배 초갑 허켄 허난,

"걸랑 기영 헙서."

이젠 무쉐설캅 동솟 곹은[110] 주먹으로 절로 셍강[111] 율안[112] 보난,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베염이 일곱 새끼 니 꼴리 물랴, 나 꼴리 물랴. 소랑소랑,

"이거 은이여. 금이여. 마 먹으라."

아끈 숨베기왓,[113] 한 숨베기왓,[114] 묵은 각단,[115] 새 각단 밧디[116] 자락허게[117] 비와부난, 묵은 각단 새 각단밧더레 솔솔허게 다 들어갓구나.

그날부터 배아피여.[118] 눈아피여.[119] 간장염 늑막염 복망염 폐병 설레 아이고, 죽을 ᄉᆞ경(死境)이 다 돌앗구나. 아이고, 이젠 어떵허민 조코. 신흥(新興) 봉서신디 간 문점 허난

"웨국서[120] 들어온 등세칠성 한집에 걸렷우다."

"어떵허민 좁네까?"

떡도 일곱, 밥도 일곱, 술도 일곱, 잔도 일곱 문 출령[121] 칠성젤 셍기알로 강 지냅센 허연. 일곱 좀수가 칠성젤 지내난, 눈아피도 걷어간다. 배아피도 걷어간다. 간장염 늑막염 복막염 물비리징[122] 강비리징[123] 허벅지징 녹나무징 온갖 신병 다 걷언. 이

---

103) 물에 들레 가단: 물질하러 가다가.
104) 봉갓구나: 주웠구나.
105) 느가 문저: 니가 먼저.
106) 볼락: 생선의 한 종류.
107) 무사: 왜?
108) 훈 바당에: 한 바다에.
109) 반득이: 기울거나 비틀어짐 없이 바르게. 반듯하게.
110) 동솟 곹은: 솥 같은.
111) 절로 셍강: 궷문 따위가 열리는 소리.
112) 율안: 열어서.
113) 아끈 숨베기왓: 작은 숨비기 밭.
114) 한 숨베기왓: 큰 숨비기 밭.
115) 묵은 각단: 오래된 띠.
116) 새 각단 밧디: 새 띠 밭에.
117) 자락허게: 힘차게 던지거나 또는 미는 꼴.
118) 배아피여: 배앓이여.
119) 눈아피여: 눈앓이여.
120) 웨국서: 외국서.
121) 문 출령: 모두 차려서.
122) 물비리징: 물기가나는 옴의 증상.

애기덜 칠성젤 지내난, 동이와당[124] 대전복 서이와당 서전복 망사리 ᄀᆞ득[125] 망태 ᄀᆞ득 헤가난 막 부제가 뒈여가난, 함덕 사람들 뽄 보멍,[126] 우리도 일곱 좀수처럼 우리도 칠성젤 지내젠 헤가난 함덕 사람들 문 잘 살아가난,

함덕 서물한집님은[127] 아이고, 저 웨국서 들어온 등세 칠성 한집님 때문에 우린 밥 ᄒᆞᆫ직[128] 술 ᄒᆞᆫ직 먹으라. 시라 아니 허난, 저 선흘(善屹) 곶디[129] 올라강 들굽낭[130] 작데기[131] 헤당[132] 동서더레 막 케우려불켄[133] 웅성 조합 헤가난, 우리 이디 잇엇당[134] 매 맞앙 죽을거난 우리 성안 읍성 올라가겐.

"걸랑 기영 헙서."

밤이랑 소롯질로[135] 대롯질로,[136] 낮이랑 대롯질로. 저 조천(朝天) 만세동산 간 ᄎᆞᄎᆞ[137] 영기(令旗) ᄒᆞᆫ쌍 불려두고 신촌(新村) 진드르에[138] 간 ᄎᆞᄎᆞ 영기 ᄒᆞᆫ쌍[139] 불려두고, 화북(花北) 열녀문에 간 열녀비석 세와두고, 저 ᄀᆞ으니ᄆᆞ루[140] 올라간, 아이고 목도 ᄀᆞ읏ᄀᆞ읏 허다.[141]

베린네[142] 가난 물도 벤찍벤찍[143] 헤엿저. 묵은 옷이랑 벗언 가시자왈더레 착착 걸쳐뒁, 몸목욕 허영 ᄀᆞ으니모루 동산 올라가난 목이 ᄀᆞ읏ᄀᆞ읏 허엿구나. 송서(訟事) 헐 셍각이 엇엇구나.

동문(東門)으로 뒤틀젠 허난 동문지기 잡앗구나. 서문(西門)으로 들젠 허난 서문지기 잡앗구나. 남문(南門)으로 들젠허난 남문지기 잡앗구나. 북문(北門)으로 들젠 허난 다 잡앗구나.

동으로 바려보난 동터 오난 월경(月景) 좋다. 동문통[144] 이름 셍명 지와 두고. 서으로 바려보난 지어가는 일경(日景) 좋다. 서문통 이름 셍명 지와 두고. 남문통[145] 이름 셍명 지와 두곤, 산짓물[146] 이름 셍명 지와 두고,

---

123) 강비리징: 마른 옴의 증상.
124) 동이와당: 동해바다.
125) ᄀᆞ득: 가득.
126) 뽄 보멍: 모습을 보면서.
127) 서물한집님은: 함덕리(咸德里)의 당신(堂神).
128) 밥 ᄒᆞᆫ직: 밥 한적.
129) 곶디: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잡목 따위가 우거진 들에.
130) 들굽낭: 두릅나무.
131) 작데기: 막대기.
132) 헤당: 해다가.
133) 케우려불켄: 내던져버리겠다고.
134) 이디 잇엇당: 여기 있었다가는.
135) 소롯질로: 좁은 길로.
136) 대롯질로: 넓은 길로.
137) ᄎᆞᄎᆞ: 차차
138) 진드르: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너른 들판을 이르는 지명,
139) ᄒᆞᆫ쌍: 한 쌍.
140) ᄀᆞ으니ᄆᆞ루: 제주시 건입동(建入洞)에 있는 지명.
141) ᄀᆞ읏ᄀᆞ읏 허다: 숨이 막혀 힘을 차리지 못해 하다.
142) 베린네: 화북동(禾北洞)의 별도천(別刀川)
143) 벤찍벤찍: 반짝빤작 빛나는 모양.
144) 동문통: 제주시 일도동의 제주성 동문 일대에 있었던 마을을 말함.
145) 남문통: 제주시 삼도동의 제주성 남문 일대에 있었던 마을을 말함.

이젠 겍서(客死)동산에 강 겍서비석(客死碑石) 세와 두고 동과양 서과양으로 이름셍명 지와 두고 남문통 이름 셍명 지와 두고. 저 먹돌세기로[147] 헤연 이름 셍명 지와두고.

이젠 칠성골에 골목도 일곱이로구나. 칠성골에 목도 길다. 일곱이여. 칠성골로 이름 셍명 지와 두고. 산짓물에 가난 물도 좋다. 산짓물로 이름 셍명 지와 두고. 이제랑 우리 관덕정 마당에 강 이름 셍명, 제주시 뎅기멍[148] 문 이름 지와시난, 산짓물에 강 네팟골로 헤 앚언 산짓물에 강 우리 산짓물 헤영. 관덕정 마당에 강 느 꼴리 물라. 나 꼴리 물라. 앚아시난[149] 제주 사람덜 투더럽덴 춤[150] 탁탁 바까가난,[151]

"아이고, 우리 이디 이시민 놈 더럽게 셍각 허난 우리 각각이 삐어졍[152] 얻어먹기가 어떵허니?"

"걸랑 기영 헙서."

"큰똘 애기야, 얼로[153] 갈탸?"

"나도 갈 디 잇우다. 난 동과원(東果園) 나 초지. 서과원 나 초지. 남과원 북과원 ᄎᆞ지 허쿠다.

"걸랑 기영 허라."

큰똘 애긴 과원할망 ᄎᆞ지헌다.[154] 두 번째 똘애긴 메방(每房)할망 ᄎᆞ지헌다. 세 번째 똘애긴 관할망 ᄎᆞ지헌다. 네 번체 똘애긴 옥(獄)할망 ᄎᆞ지헌다. 다섯 번체 똘애긴 어딜로 가쿠가? 광청(官廳)할망 ᄎᆞ지허쿠다. ᄋᆞ섯번체 똘애긴,

"족은 똘애긴 어디로 갈티야?"

"난 산짓물에 강 잇당[155] 송칩이 똘애기 물질레[156] 오민 치메깍에 돌랑 강 연양 상고팡에[157] 들어 강 홉(合)지기[158] 뒈(升)지기 섬(石)지기 말(斗)지기 난 ᄎᆞ지허쿠다."

"게민 어머님은 얼로 가쿠가?"

"느네, 설젠 허난[159] 상(上)눌[160] 건지[161] 중(中)눌 건지 하(下)눌 건지 씨언[162] 설엇저. 저 뒤에 배낭 아래나, 감낭[163] 아래나, 유지낭[164] 아래나 청대 고대 알로 좌정

---

146) 산짓물: 제주시 건입동(建入洞)에 있는 지명(地名).
147) 먹돌세기: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지명. '먹돌세기'는 결이 곱고 매끈한 자잘한 검은 돌을 말함.
148) 뎅기멍: 다니면서.
149) 앚아시난: 앚아 있으니.
150) 춤: 침.
151) 바까가난: 뱉어가니.
152) 삐어졍: 흩어져서.
153) 얼로: 어디로.
154) ᄎᆞ지헌다: 차지한다.
155) 강 잇당: 가서 있다가.
156) 물질레: 물 길러.
157) 연양 상고팡에: 광을 일컫는 말. 영연상고방(靈筵上庫房).
158) 홉지기: 곡식을 지키는 신.
159) 설젠 허난: 애기 낳으려고 하니.
160) 눌: 주로, 조나 보리, 또는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아놓은 더미.
161) 건지: 건지머리의 준말. '건지머리'는 여자가 주로 결혼할 때, 꾸미기 위한 가발 머리.
162) 씨언: 씌어서.
163) 감낭: 감나무.
164) 유지낭: 유자나무.

(坐定)헤영. 느네 일 년 열두 돌(月) 시만국석(新萬穀食) 거두와 오민 과세문안(過歲問安), 일 년에 흔번 문전ᄒᆞ서[165] 허젠 허민, 오곡씨 헤영 어머님신디 진상 가는 법지법 마련헤엿우다.

어머님은 애기덜 설젠 허난, 주지[166] 썽[167] 서난,[168] 저 상 뒤에 밧칠성으로 좌정허영. 상(上)눌 건지, 중(中)눌 건지, 하(下)눌 건지 씨엉[169] 애기덜 오곡씨 묻는 법 마련허고, 동창궤(東倉)도 ᄀᆞ득입서.[170] 서창궤(西倉)도 ᄀᆞ득입서. 남창(南倉)궤 북창(北倉)궤 ᄀᆞ득입서.

한집님은 죽는 법 엇엉. 아홉 번 죽엉 열 번 도환싱(還生)허고, 산으론 산신(山神)칠성인 듯 물론 요왕(龍王)칠성인 듯 배론 선앙(船王)칠성인 듯.

지방가는 안칠성 밧칠성 부군(富君)칠성 성군(聖君)칠성 안노저[171] 밧노저 거리노저 질노저 젝입네다.[172] 이 집안 부제팔명(富者八命) 시겨줍서.

---

165) 문전ᄒᆞ서: 문전코사.
166) 주지: 주젱이. 띠를 엮어 원뿔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쌓아놓은 노적가리에 'ᄂᆞ람지'를 두르고 나서, 그 'ᄂᆞ람지'의 윗 부분을 덮어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.
167) 썽: 씌어서.
168) 서난: 설다. 애기가 서니.
169) 씨엉: 씌어서.
170) ᄀᆞ득입서: 가득하게 하십시오.
171) 안노저: 안 노자. 안 여비.
172) 젝입네다: 차곡차곡 물건을 쌓다.